



CEO Brief

2022.08. 제2022-12호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요약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의 보장성 약화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이에 연금시장을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그리고 퇴직연금의 3개 연금시장으로 세분화하여 각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 및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함

-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제도 보장성 약화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산업인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 사적연금시장은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경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시장,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시장, 퇴직연금(DC, DB)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종이 취급하며, 세제혜택 니즈가 높은 일반 개인이 가입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만이 제공하고 있는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은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일반 개인이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고자 가입하는 연금상품임
 - 퇴직연금이 도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퇴직연금의 형태에는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고용주가 책임지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근로자가 책임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또는 기업형 IRP가 있음
- 보험산업은 모든 형태의 연금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의 연금 보험료 규모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금융업종 간 연금시장 점유율 경쟁에서도 열위를 보이고 있음
 - 보험산업은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세제 축소와 금융업종 간 경쟁 등 수요 측면에서,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수수료 압박, 새로운 회계기준 및 자본규제, 경직된 상품구조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음
 -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보험회사가 강점을 지닌 DB형 퇴직연금이 은행 점유율이 높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있고, 수익률 제고 명목의 투자형 상품 확대 노력 등 주로 제도적 요인과 금융업종 간 경쟁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CEO Brief

〈표 1〉 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위축 요인

사적연금 분류	위축 요인
세제적격 연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혜택 약화(소득공제 → 세액공제) -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률 논란 - 개인형 IRP의 세제적격 연금시장 잠식
세제비적격 연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금리하에서 수수료 제약(7년 내 원금 100% 보장) - IFRS17, K-ICS제도 도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 변액연금의 선취 수수료
퇴직연금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 퇴직연금 비중 축소 - 낮은 수익률 - 투자형 상품 유도

- 본 보고서는 연금시장을 세분화하여 각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세액공제의 소득공제 환원,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의 연금과 저축성보험을 구분하여 연금상품 별도 관리, 수수료 구조의 다양화 허용, 퇴직연금시장에서 연금수령 기간을 20년 이상 또는 종신연금 선택 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제적격 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함으로써 연금저축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의무연금수령 기간에 연동하여 세제혜택을 차등화함으로써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제비적격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 7년 환급률 100%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금화를 유도해야 하며,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의 연금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전략적 시사점에는 세제적격 연금시장에 변액연금 포함,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연금가입 목적별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및 공급, 사망보험상품과 연금상품 간 자연헛지 효과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 수익률 개선 노력 및 리스크 관리, 퇴직연금시장에서 수익성 제고 및 서비스 혁신이 있음
 -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저축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 간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변액연금을 세제적격 연금에 포함하고, 개인형 IRP에 대해서도 투자 옵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형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변액보험의 경우 선취 수수료 부담이 적은 후취 수수료 상품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유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CEO Brief

- IFRS17과 K-ICS 환경에서 연금에 대한 재평가와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를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이 요구되며, 보험회사는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시장에서는 보험산업이 열세에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하고, 종신연금 수령기에 강점이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표 2〉 사적연금 및 보험산업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

정책적 대응방안	(세제혜택 확대)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
	(연금보험 분류방식 변경)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화 유도)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의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략적 대응방안	(저축형 및 투자형 상품의 균형) 저축형과 투자형 상품 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
	(연금가입 목적별 연금상품 공급)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 확대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 극대화
	(수익률 개선 및 리스크 관리) 연금상품 설계,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 수익성 개선
	(퇴직연금과 종신연금 연계)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 마지막으로, 사적연금시장은 하나의 단일 시장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연금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하여 서로 다른 세 연금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사적연금의 니즈는 노후자산을 적립하는 데 있거나 적립된 자산을 연금의 형태로 유동화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며, 적립의 경우 저축인지 투자인지의 의사결정이 필요함
 - 특히 노후자산 적립 시장은 업권 간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환경 및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수요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강점을 가진 부분과 약점인 부분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사적연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간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투자형 연금상품 확대에는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판매 측면에서도 종합 컨설팅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김세중 연구위원
sjkim@kiri.or.kr